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소설 형식을 비는 경우가 무척 많다. 딱딱한 이론을 재미난 이야기로 꾸미는 것 자체를 닦할 일은 없다. 그런데 ‘쉽게’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전 혹은 경전과 이 양식을 대비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소설화된 교양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보로서가 아니라 사건으로서 이해시키고자 하며, 또한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체험으로서 받아들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실제의 책들은 얼마나 이런 이상에 가까이 가 있는가? 이른바 “소설로 읽는” 교양서들은 ‘쉽게’라는 명분하에 엉성하고 잘못된 지식을 마구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런 류의 책들 중에서 비교적 깊이라고 평가받은 두 책을 검토해보는 것은 문제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두 책은 《테오의 여행》과 《소피의 세계》다.

테오의 실패와 소피의 성공

《테오의 여행》은 난치병에 걸린 테오가 종교와 문명의 발생지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종교세계를 접하는 과정을 통해 병이 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로 읽는 세계의 종교와 문명’이라는 부제는 테오의 병이 현대인이 공통적으로 앓는 마음의 질병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 마음의 질병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독자의 애초 예측을 슬며시 배반한다. 독자는 우선 테오의 병이 신이 사라진 시대의 현대인의 불안을 암시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설은 그보다도 종교와 현실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맹목적 신앙이 드러내는 아집과 그것이 저지른 각종 비극적 사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더욱 강조한다. 수수께끼 풀이를 기본 구조로 가진 이 소설은 은근히 종교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종교와 세속이 만나면서 형성한 세계문명의 특수한 단면들을 부조해낸다.

그리고 이 책은 안타깝게도 종교와 여타의 정신영역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도, 각 종교가 생각하고 있는 신의 모습과 신 앞에 처한 인간의 자

세에 대해서도 그다지 깊게 알려주는 바가 없다. 가령, 작가에게 비교적 익숙한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를 비교하는 대목에서도,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애매한 절충 정도로 비치고 있으며, 이 애매한 절충에 의해 교리와 실제 사이의 이율배반적인 갖가지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막연한 추정을 독자로 하여금 갖게 한다. 게다가 이 책은 종교집단이 벌인 역사적 사건들의 부정적 모습을 통해, 신앙에 대한 노골적인 회의를 곳곳에서 드러낸다. 종교에 대한 접근을 도와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종교로부터 멀어짐을 부추기는 책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이것은 입문서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지면 관계상 자세하게 언급할 수 없지만, 《소피의 세계》는 철학의 발생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추적해가면서 철학과 다른 정신영역 간의 차이, 그리고 철학들의 다양한 면모와 세계관을 비교적 차분히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설은 철학을 도와주는 비유의 차원에 철저히 머문다.

해당 분야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 필요

두 가지 예가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테오의 여행》의 작가는 소설과 지식 전달을 혼합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설로서는 설익은 추리소설이 됐으며, 지식에 대해서는 핵심을 보여주기보다는 현상들을 어지럽게 늘어놓는 데 그치고 말았다.

교양서의 소설화, 문제는 없는가

정과리 | 충남대 불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전문적인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자는 요구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더욱이 이를 위해 소설장르를 차용한 것도 그리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쉬워야 한다는 명분 아래 엉성하고 잘못된 지식이 남발될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중요한 것은 교양서가 해당분야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에 바탕해 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피의 세계》는 소설로서는 뛰어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한계를 철학에 복무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어려운 철학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테오의 여행》의 실패는 작가가 소설가로서도 지식 전달에 있어서도 다 같이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소설로 쓰든, 사전으로 쓰든, 경전으로 쓰든, 지식전달자의 제1조건은 해당 분야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다. 또한 교양서에 소설을 이용했다고 해서 소설이 훼손당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것도 소설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다. 다만, 그때 소설은 소설이라기보다 비유적 이야기다. 용어야 어찌 됐든, 이야기 형식은 본래의 목표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될 때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통제의 능력도 본래의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한다.

그런 까닭에 나는 입문적 성격을 지닌 교양서는 가능한 한 그 분야에 오래 종사한 원로급 대가들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런 분들만이 ‘쉽게’의 의미가 단순히 ‘빨리’ 이해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스스로 깨치게’ 이해시킨다는 뜻임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대가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모양이다. 무분별하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뛰어들고 있으니 말이다.●